

● 사양관리-꿀벌의 월별 관리요령



이 성 배
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 지회장

그동안 저의 두서없는 원고를 읽고 많은 격려와 충고를 주신 많은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가 원고를 게재한지가 어언 일 년 앞으로 계속 원고를 올린다 하여도 양봉 사양관리 방법은 대동소이 하므로 편집부에서는 유능하신 분을 모시고 좋은 자료를 올려 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수시로 협회보에 올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양봉산업이 어렵더라도 용기를 잃지 협회 마시고 새로운 집행부와 같이 화이팅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 계절별 사양관리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의 양봉관리

2월은 봄이 태동하는 달로서 이달에 입춘과 우수가 들어 있다. 겨울동안 추워서 출입을 못한 벌들도 따뜻한 시간을 이용하여 탈분도 하고 남쪽지방에서는 이름 모를 화분도 수집하여 오기도 하고 동백도 피고 버들강아지도 개화한다. 따라서 꿀벌의 활동도 점차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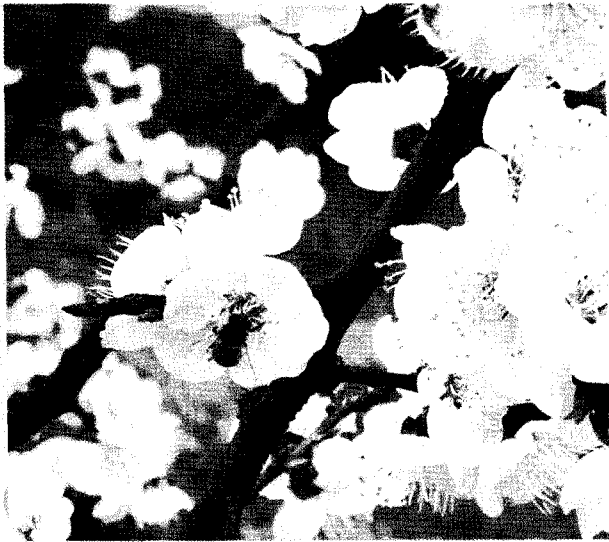


고 관리방법도 점차 과학화되어 과거에 100군당 10D/R의 아카시아 꿀을 생산하는 것을 20D/R이상 생산하는 양봉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에는 밀원 식물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사양관리 방법이 점차 발달하고 가온장치의 기술 발달로 추위 속에서도 육아가 가능하고 행정적인 지원 하에 다단계 방법이 원인이지 않나 생각한다.

일부 양봉인들은 행정지원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 행정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타 축종 단체는 심지어 사료까지 지원을 받는데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지원이라도 받아 자재



를 비롯하여 화분이라도 조금이나마 싸게 사용하여야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 절량 및 부분사 조사

월동 중에 안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봉균 쪽에서는 식량소모가 많아 절량된 봉균을 볼 수가 있다. 전본 검사균을 택하여 내검을 할 때 식량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여왕벌의 망실 유무 등을 확인하되 내검은 저밀소비를 오랜 시간동안 소상 밖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내검과 동시에 축소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벌의 숫자에 맞추어 격리판 안쪽으로 몰아붙이되 벌의 밀집도가 높은 것이 좋다. 다시 말해서 사양기 넘어로 반소비 이상 넘쳐 있어야 한다. 내검 중 균세 유지가 어려운 봉균을 발견시에는 합균으로 처리하되 반드시 약균을 강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대용화분공급

자연화분을 그대로 사용하면 좋으나 환율로 인하여 화분 값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화분 값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섞어 먹이기도 하는데 이는 전문적인 상식이 없으면 조심하여야 한다. 잘못 배합하면은 단백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중에 자연화분을 배합한 대용화분이 많이 시판되고 있어 이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벌들이 한 마리의 유충을 키우려면 0.1g의 화분이 필요하다고 하나 그 이상 준비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대용화분 제조시 자연화분30%, 탈지 대두분40% 맥주효모30% 정도 배합하여 50℃정도의 온도에 4~5일 두면 발효가 된다.

특히 초심자는 이 화분떡을 벌통에 넣을시 시간이 경과되어 시큼한 냄새가 난다하여 변질로 인해 벌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발효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다 수분 공급

대용화분 못지않게 봉균에게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다. 유충의 방을 청소 한다든지 또는 젖을 준다든지 할 때도 많은 양의 물이 소모된다. 특히 요즈음은 전기가온을 이용한 다든지 보온 덮개를 이용하므로 더욱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날씨가 나빠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유충이 메말라 죽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급수기를 이용하여 급수를 하여주어도 좋으나 이때 물 10ℓ 에 소금을 약간 넣어 급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봉장 주위에 급수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벌들이 수분 공급을 위

하여 개울가에 갈다가 온도가 떨어져 동사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리 보온 장치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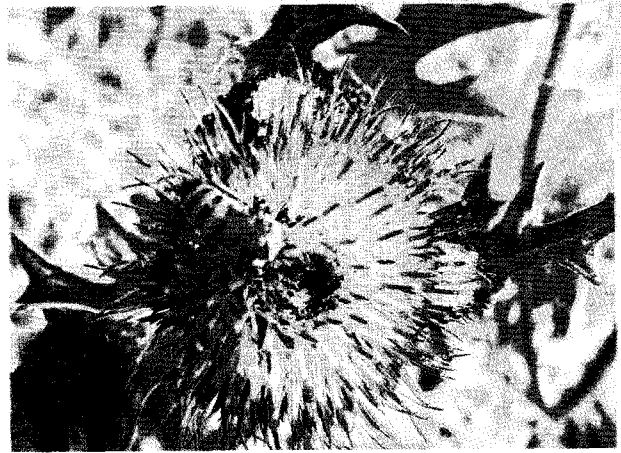
봄철 육아를 위한 보온장치 보충이 필요하다. 내부보온 장치로는 두께 5mm 고압 스티로폼을 소상내부에 들어 갈수 있도록 절단하여 보충이 필요한 면에 보완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소상 밑부분에 보온을 더욱 신경을 써서 소상 내 바닥에 벌이 떨어져도 냉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마 축소의 시기와 방법

(1) 축소 시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시기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땅이 풀리어 탈분한 이후 영하 5℃이상 내려가지 않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 되는데 그 해의 기후를 감안하는 것이 좋다. 보통 남부지역은 2월초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 가온을 할 때는 오히려 약간 일찍 시작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



(2) 축소 방법

봄에는 비교적 날씨가 좋지 않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벌이 낮 놀이 할 정도의 좋은날이 아닌 이상 축소할 때 벌을 털지 않는 것이 좋으며 벌이 붙어 있는 소비를 점검해 보아 식량이 충분하고 수벌 방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착봉 소비로 쓰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소비로 교체하면 되겠는데 전부 신 소비가 아닌 이상 신 소비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착봉은 과거 2~3매씩 붙여서 벌을 길렀지만 1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한데 이는 기온이 낮은 때라서 보온하는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벌이 밀집이 잘되어 열이 나다보니 산란권 확대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며 벌들 또한 체력소모가 적어 수명이 연장 될수 있으며 처음부터 많이 소비를 넣고 기르는 것보다 1매부터 시작하여 증소 하면서 기르는 것이 오히려 빠르기 때문이다.

여왕벌이 붙어있는 소비가 아니면 뒤 장으로 왕이 넘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사양기 뒤에 최소한 1매이상의 벌이 넘어 올수 있도록 붙여야 하겠으며 그 미만은 과감히 합군을 해주고 계상 관리를 할 봉군은 봄벌이 최소한 2.5매는 되어야 한다. **양봉**